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과학연구 제3집(1999)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통한 동서경제협력방안

송태백*

〈요약〉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현실은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힘을 합쳐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다툰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쌓여있는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동서경제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각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은 인접한 지자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화·연·관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지자체 간의 협조적인 계임을 유도하여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에 입지한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에의 지역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시장의 공동개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순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물류학과 강사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산업이란 국가의 일정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의 집합체로서 넓은 의미에서 1:2:3차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이란 정책의 목표와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시각에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각의 유형은 국가의 산업정책(산업구조정책)의 모든 부분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시각의 유형은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산업정책이다(김선기 1996).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가며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앞장서야 하는 주체는 해당 지자체가 되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으로는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내의 산업군을 타 지역과 똑같이 갖추어야 한다는 나열식 및 모방식 지역개발의 방식보다는 개성있는 특화산업의 개발이 경쟁력과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게 하는 관건이다(광주전남발전연구원 1998)는 것을 각 지자체는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자기 지역내에 독점적으로 유치하여 자기 지역의 발전만을 도모하려고 과당경쟁을 벌이는 경우에는 인근의 지자체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이 지니고 있는 기존 지역감정의 폐해는 해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쌓여있는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동서경제협력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것은 특화산업의 입지에 대하여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설정될 때에 가능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은 인접한 지자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1. 특화산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산업의 특화 또는 전문화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역이 자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만을 생산함으로써 교역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5).

즉, 각 지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지역내의 모든 산업부문에 넓게 배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는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많은 유형의 산업을 비효율적으로 동시에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지닐 수 있는 몇 가지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자원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은 다른 지역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화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특화산업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의 파악은 쉽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특화산업에 관한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특화산업육성품목에 의거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지방의 전통적 상품을 위주로 한 지역적인 요소가 강한 품목들이었다. 따라서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선정된 특화산업은 농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특화산업의 논의를 2,3차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이춘근외 6인 1997).

많이 이용되고 있는 특화산업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김범식의 5인 1996). 첫째, 특정지역에서 특정산업의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으면 그 산업을 특정지역의 특화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둘째, 특화산업의 개념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산업으로 국한하여 특정지역의 고유상품들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거나 최근에는 그 지역에 부존하는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역외지향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집단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들 수 있다. 셋째, 지역사정의 아무런 고려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특화산업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화산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 이용한다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적용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개념으로는 특정 산업이 지니고 있는 그 지역내의 잠재력,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성장비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을 들 수 있다(김범식의 5인 1996). 특화산업이 특정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지역간 교역을 통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화산업을 통한 지역간 교역이 한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효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2. 특화산업의 선정기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선정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공동체익, 지역의 특수성, 산업의 역사성, 지정학적 환경을 중시하면서 개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즉, 가능하다면 분업의 원리를 철저히 도입하여 각 지자체가 욕심을 버리고 경쟁력이 있는 몇 개의 산업에 특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피상적인 지역이기주의보다는 진정으로 인접한 지자체들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요구되고 있다. 즉, 우리 지역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우리나라를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자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성장, 즉 지역생산 및 지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지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간 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용자원의 제약조건하에서 부가가치의 생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각각의 생산요소를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효과가 높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서 특화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구체적으로 경쟁력, 성장성, 산업연관성, 지역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의 조건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건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어명근외 2인 1993).

첫째, 지역전략산업으로서 특화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특화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성은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갖추어졌을 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특화산업이 갖추어야 할 첫번째 조건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특화산업은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가 커야 할 것이다. 모든 산업은 원재료 및 중간투입물을 생산하는 다른 산업과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산업에 전후방 연관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를테면, 특화산업을 육성할 경우 지역내 다른 산업부문들도 각각의 효율성에 따라 전방연관효과와 후방연관효과에 의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특화산업은 지역내의 다른 산업부문보다 가능한 한 성장속도가 빨라야 한다. 지역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생산액에 관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변수들의 변화를 계측하거나 부가가치와 같은 수익성 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 생산액의 측면 또는 고용증대의 측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산업이 지역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넷째, 특화산업은 지역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지역경제의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성은 가용가능한 천연자원, 타지역과의 시간적 거리 및 공간적 거리, 위치, 기후, 강우량과 지형 등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1차 생산요소의 가용성, 생산된 산출물의 판로 즉 생산물 시장의 접근 가능성과 도로, 가용 교통수단, 금융, 행정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또는 공공재의 이용가능한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부문에서도 급속히 진전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이제 지자체는 저렴한 지가와 풍부한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가 지자체내에 부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지역이 특화산업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오히려 시장과의 시간적 거리 및 공간적 거리가 더욱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산업의 육성은 지역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소비까지 확대시킴으로서 지역경제의 명실상부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어명근외 2인 1993).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본 특화산업의 선정기준으로는, 특성상 어느 정도의 폐쇄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간의 거래와는 달리 공간적인 거리외에는 거의 아무런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모든 지역에 거의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부존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소극적인 지역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완전경쟁에 가까운 국제화 및 개방화추세에서도 특화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특화산업의 입지여건

특화산업이 특정지역에 입지하여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입지특성과 더불어 생산기술상의 입지특성이 가능하다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1995).

지자체가 어떤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특정지역에 유치시키려고 계획할 때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강, 화학, 비철, 합섬, 시멘트 등과 같은 소재형산업은 자원이 풍부하며,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함께 수요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지역이 바람직하다.

둘째,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종부품 및 중간재로 주로 쓰이는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산업별 입지여건

| 업 종 | 입 지 여 건 |
|------------------------------|--|
| 종이, 펄프,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석유, 석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적인 원료소재지 혹은 항만조건을 갖는 수출입원료지 - 어느 정도의 광역적인 교통망의 결절중추시설이 필요 -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용지용수조건이 필요 - 도시기능보다 필요한 기술적인 요인의 중요성 |
| 식료품, 섬유, 목재, 목제품, 요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적인 원료소재지 및 이들의 집하기구의 발달 - 저소득노동력과 양질의 기능공, 기술자의 존재필요, 즉 배후지의 원료자원 및 노동력의 존재에 크게 의존 - 지역자체가 시장인 동시에 배후지를 필요 - 교통통신기구를 통하여 전국적인 유통기구에 접속되어야 하는 등의 소비시장을 구비하여야 함 |
| 의복, 가구,皮鞋 고무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체의 시장조건, 유통조건 등이 필요 |
|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용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집적을 가능하게 하는 타기업의 존재필요 - 이용가능한 기술적정보망과 연구기관의 능력 - 경제적 행정적기능의 존재 - 지적노동력을 유인, 정착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 교육시설, 자연적, 문화적 환경의 존재 |

자료 : 김도형 (1993), 일본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정책, 산업연구원.

셋째,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과 같이 대량생산방식을 도입한 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지역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계류 공업은 해외시장을 수요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은 고학력의 노동력 공급이 원활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산업이 특정지역에 입지할 때 고려되어야 할 생산기술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철강, 화학, 종이, 펄프 등과 같은 소재형 산업은 중간제품부문으로 다른산업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둘째, 농약, 방직, 섬유제품, 장신구 등과 같은 경공업은 제품시장간의 독립성이 강하며,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 셋째, 정밀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계 등의 기계류, 금속가공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넷째, 가전제품 등과 같은 내구소비재부문은 독립성이 강하여 여타 부문의 집적을 고려함없이 생산효율을 우선시켜 입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지 입지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특화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생산기술상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여 특화산업의 특정지역에의 유치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사항은 잘못된 특화산업의 입지결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 시설, 기계기구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회수불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특화산업의 전반적인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활동의 튼튼한 기초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인적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항만, 도로, 철도, 공항, 용수, 정보통신, 주거환경, 교육 등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자치행정의 질이나 법적제도, 기업에 대한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 하부구조와 더불어 지역에 축적된 노동력의 양과 질 등과 같은 인적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특화산업육성시 고려사항

1) 특화산업육성시의 긍정적인 측면

지자체가 많은 수의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몇 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생산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집적효과란 동일한 지역내에 동일한 산업이 입지하여 기업간에 기술 및 정보의 습득, 자본의 축적, 인력확보 등이 용이하여 분산되어 있는 경우보다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란 산업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각종 컴퓨터관련 기업의 집적이 시작되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되었다. 이곳에서는 기술과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고, 유사업종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집적효과가 극대화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의 집적과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여 새로운 유망한 기업이 창업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특화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통하여 전방연쇄효과 및 후방연쇄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산업군의 동반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이 특정지역에 특화산업

으로 육성되는 경우에는 수 많은 부품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철강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육성되는 경우에는 기계공업, 조립금속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군이 동반하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한정된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을 소수의 특화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지자체의 체계적인 공공행정의 집중적인 지원 및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심도있고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산업의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어 시장변화에 신속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2) 특화산업육성시의 부정적인 측면

지자체는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지자체가 특화산업이 지녀야 할 경쟁력, 성장성, 산업연관성, 지역성 등을 무시하고 다른 이유(정치적, 지역정서, 전망있는 첨단산업, 전시효과, 밴드왜곤현상 등)를 지나치게 주장하며 특정산업을 무리하게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지역경제에의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성장가능성과 투자효율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지자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에는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른바 밴드왜곤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셋째, 지자체가 지나치게 소수 업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즉, 특화된 업종의 경기가 좋아서 성장할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고 지역의 경기여건이 호황이지만, 특화된 업종에 불황이 닥칠 경우에는 소수의 업종에 특화도가 높을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특화산업정책을 구사할 경우에는 적어도 3-5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주기적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산업의 수급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II.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특화산업

1. 전라남도의 특화산업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제조업 배치에 의하여 전남지역은 일부 대기업 위주의 장치산업인 중화학부문이 지역내

의 제조업 생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석유정제품업, 화학제품업, 1차금속산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의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산업은 전국적인 측면에서도 전라남도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은 세계수요의 위축 및 공급과잉 등에 민감하게 적응하기가 어렵고, 소비패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미래의 유망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들이다(광주-전남발전연구원 1998). 또한 이들 산업과 연관된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지역산업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영세한 소기업위주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의 첨단업종과는 거리가 먼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산업의 구조를 바로잡아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인접한 경상남도지역의 산업들을 고려하여 선정된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의 육성은 양 지역의 산업들이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서 경제협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의 특화산업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개발한 SERI특화산업모형을 적용하여 삼성경제연구소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1996)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점특화산업과 특화유망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표 2>).

첫째, 중점특화산업이란 전반적으로 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유발효과, 입지여건 등의 경쟁력 등이 양호한 산업으로 지역내 주력산업으로 적합한 산업이 선정되었다.

둘째, 특화유망산업이란 기존산업과의 연계효과를 높이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과 분석대상인 광공업이 아니어서 제외되었으나 물리적·문화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커서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킨다면 커다란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이다(김범식의 5인 1996).

<표 2> 전라남도의 특화산업

| 중 점 특 화 산 업 | 특 화 유 망 산 업 |
|--|--|
| - 제1차금속산업 (철강 및 철강관련제품) -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관광산업 (항토축제, 주민관광, 해안관광 등) - 농림수산업 (채소, 과일, 화훼 등 고소득작물) | - 비금속광물제품 (시멘트, 유리제품, 도자기) - 조립금속제품 - 섬유제품(화학섬유) - 고무 및 플라스틱 - 음식료품(수산가공 등 식품가공) - 석탄 - 자동차, 기타운송장비(조선) |

자료원 : 김범식의 5인 (1996) :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 분석과 육성방안, 삼성경제연구소-광주-전남발전연구원, 77.

삼성경제연구소(1995)와 김범식 등(1996)에 의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남지역은 기초소재형산업에 특화하는 것이 비교우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테면, 코크스 및 석

유정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의 화학류와 제1차금속산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산업은 일반적으로 전방연관효과 및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이지만,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연관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산업의 연계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들과 전방연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경우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산업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될 뿐만 아니라 수출도 원자재를 단순가공한 중간재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역내 타업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오성동 1995). 따라서, 역내의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산업 및 기계, 정밀화학 등과 같은 역내의 주력업종과의 연관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존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요업종은 상위 1-2개사가 출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전남지역은 풍부한 관광 및 이벤트자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관광산업이 상당한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향토축제의 활성화, 청정해안과 한려수도의 수려한 도서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안관광, 관광어촌 및 관광농촌의 조성 등을 통한 주민관광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림수산업도 기존의 쌀과 보리위주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채소, 과일, 화훼, 약초 등의 고소득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특화시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단순하게 물고기를 잡는 어업에서 벗어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을 개발하여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한다면 충분한 비교우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목포권, 광양만권 및 남해안권의 특화산업

전남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을 보다 세분하여 목포권, 광양만권, 남해안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다(김범식의 5인 1996). 광주광역시와 인접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시군은 광주대도시권역의 산업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광주대도시권의 특화산업으로는 가전, 자동차, 기계류, 식품가공, 담배, 컨벤션 및 전시산업 등을 들 수 있다.

<표 3> 전라남도의 광역별 주요 특화산업

| | 목 포 권 | 광 양 만 권 | 남 해 안 권 |
|---------|------------------------|---|---------|
| 주요 특화산업 | 조선, 요업, 식품가공, 선박용 금속제품 | 철강 및 철강관련제품, 자동차, 조립금속제품, 화학제품 및 전방관련산업 | 해안관광 |

(1) 목포권역의 특화산업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을 포함하고 있는 목포권역의 특화산업으로는 조선, 요업, 식품가공, 선박용 금속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산업과 연계하여 특화산업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목포권역에 탱커, 유조선 등의 조선부문과 선박기계 및 부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조선소 주변에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여 계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관단지의 구성이 완성업체가 직접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김범식의 5인 1996).

둘째, 전남서해안지역에는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백토, 고령토, 장석 등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고려청자를 생산하였던 도요지가 인근에 위치한 역사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어 도자기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전국에서 농수산물에 가장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식품가공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제품의 개발, 포장기술의 개발, 업체규모의 대형화 또는 대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마케팅능력의 제고, 국내외의 판매망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2) 광양권역의 특화산업

순천시-여수시-여천시-광양시를 포함하고 있는 광양만권역의 특화산업으로는 철강 및 철강관련제품, 자동차, 조립금속제품, 화학제품 및 전방관련산업 등을 들 수 있다.

광양만권은 장기적인 국토의 발전측면에서 목포와 부산을 잇는 서남부 신산업지대의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고속도로, 철도, 항만, 컨테이너항,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단지의 입지와 관련된 하부구조를 잘 갖추고 있어 전라남도 서남부지역의 경제권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로 인하여 이 지역의 산업구조가 자동차, 조선, 항만관련산업, 정밀화학, 조립금속 등으로 첨단화 및 정보화라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광양만권은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메가트랜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김명수의 4인 1998). 그러나 현재는 이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연관산업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여 지역내의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후방연관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철강 및 철강관련제품을 전방연관산업으로 다각화 및 계열화하여 집적효과와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높여야 한다. 철강 및 철강관련제품과 관련된 전방연관산업으로는 컨테이너제작업, 금속가구업, 산업용 금속제품, 건축용 금속제품, 선박용 금속제품 등을 유망한 특화산업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반기계 및 장치, 일반 기계부품 등 기계공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김범식의 5인 1996)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이 지역의 화학제품은 후방연관산업과 수송부문에 집중되어 특화되어 있으나 집적의 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전방연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유기화학 기초제품, 합성수지, 화학비료, 합성고무, 도료, 안료, 염료 등의 산업과 더불어 이들을 활용한 화학제품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밀화학제품 등을 육성하여 석유정제 또는 유제품, 석유화학 2차 제품 및 완제품 등을 일괄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범식의 5인 1996). 특화산업이 그 지역에서 전방연관산업 및 후방연관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면, 특화산업은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해안권역의 특화산업

청정해역과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치를 지니고 있는 남해안권역의 특화산업으로는 관광산업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남해안에 위치한 도서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전남남부의 내륙기능과 통합시킴으로서 개발의 승수효과를 올려야 한다.

내륙관광자원과 해안관광자원을 상호연계하여 다양한 관광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계산과 고흥해안, 백운산과 여수해안, 지리산과 하동·남해해안, 진양호와 사천해안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권역별로 향토의 역사, 지역산업, 역사적 건축물과 향토문화, 해양관광이벤트를 개발하여 연계시켜야 한다(김명수의 4인 1998). 또한 이벤트행사로서 2010년에 개최될 예정인 해양엑스포를 전남권역에서 경남 권역에까지 연계시켜서 특화산업으로서의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남권역의 특화산업

전라남도와 인접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삼성경제연구소(1995)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전분야에서 특화도가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농림수산업, 광업 그리고 3차산업의 특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부품, 자동차, 항공산업, 조선 등의 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특화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제품, 석유석탄, 금속제품, 건설, 운수 및 보관,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개인서비스 등이 장래의 유망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종이나 무제품, 수송기계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계공업의 기초를 튼튼하게 갖추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형 및 목형, 주물, 도금, 열처리, 단조 등과 같은 기초기술의 저변을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산업과 연계하여 특화산업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객선, 탱커, 유조선, 특수운반선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선부문과 더불어 각종 선박기계 및 부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조선소 주변에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여 계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관단지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진주권역의 특화산업

경상남도의 서남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진주권역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등을 포괄하는 지역개발권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광양만권과 인접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일정한 연계개발전략이 구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라남도 와 경상남도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이다. 진주권역의 중심적인 특화산업은 다음의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진주시는 제조업중에서 음식료품,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특화도가 높고, 서비스업중에서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업 및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천시는 음식료품,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및 나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기타 운송장비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진주시와 거의 유사한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특화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진주권역의 특화산업 분석

| | 진 주 시 | 사 천 시 |
|------|---|---|
| 제조업 | 음식료품,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 음식료품,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및 나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 서비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자료 : 김명수의 4인 (1998), “순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 분석 및 육성방안”, 순천대 사회과학연구소, 128.

진주권의 특화산업은 광양만권의 주력 특화산업인 철강 및 철강관련제품, 자동차, 조립금속제품, 화학제품 등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진주권과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동서경제협력은 이미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동서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 지역의 특화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Ⅲ.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통한 동서경제협력방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산업중에서 어느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및 강화

하여야 하는가와 더불어 유망한 신규산업의 유치와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유망산업유치를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특화산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발생시킬 수 있는 폐해로는 지역할거주의, 내집부근에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남비(Nimby)현상 등의 정치적인 및 정서적 요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혐오시설의 설치반대와 같은 소극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유망업종이나 첨단산업을 모두가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핼피현상(Pimfy)도 지자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입지여건이나 재원에 대한 고려없이 역외산업유치를 위한 경쟁적인 활동이 전형적인 핼피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정산업의 입지여건은 국가전체적으로 A지역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경우, 지자체간의 경쟁은 엉뚱한 지역에 특화산업의 입지를 선정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모든 지자체나 지방경제연구소는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핼피현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국가경제운용에 남비를 가져와 경제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열된 지자체간의 특정산업 유치경쟁은 크든 작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자체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각각의 지역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각 지자체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학연관의 협조체계의 구성,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의 유도,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의 모색, 타 지자체에 입지한 특화산업에의 투자, 공동브랜드의 사용, 시장의 공동개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특화산업의 육성에 의하여 동서경제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내 산업을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구조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테면, 전라남도는 지역내에 잘 발달되어 있는 소재산업(석유화학 및 제1차금속 등)과 관련하여 전·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조립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기계 및 고무·플라스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소재산업을 축으로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오성동 1995).

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장부지의 이전에 따른 등록세, 면허세 및 취득세의 감면혜택과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폐업시에는 창업과 연계시켜 조세감면과 공장부지 등의 알선을 해 주며, 법인세의 세율을 산업경기와 연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유망산업의 발굴과 그 산업으

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산업구조조정 방안의 수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내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이춘근외 6인 1997). 이러한 산업구조정책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타 지자체로 공장이 이전되어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를 높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특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조성하여 지역내의 기업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산·학·연·관의 협조체계의 구성

특화산업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의 각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이 발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능력이 배양하고, 산업체에 각종 기술 및 경영정보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많은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을 공동이용으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지자체들이 지니고 있는 현안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지역민들의 갈등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전남권역 및 경남권역의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의 각 주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기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양 지역의 지역주민,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경제 및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협의체의 성격을 지녀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경제협력은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장애성이 충분하여 양 지자체가 육성하기를 원하는 특화산업이 존재하지만, 양 지자체가 동시에 그 산업을 육성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 쪽에서 양보하여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이 쌓여있다면 손쉬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의 유도

지자체의 역기능중의 하나는 지역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산업입지를 선정, 즉 자기 지역 및 전국에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산업을 유치하거나 기존의 해당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자체가 타 지역이나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고려없이 자기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산업을 유치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즉 각 지자체간의 비협조적 게임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자체는 국가전체적으로 타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업을

향해 무리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비경제적인 요인(예를 들면 지역의 크기나 주민의 수 등)으로 인해 산업입지가 결정될 소지가 크다. 이것은 국가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되어 경제성장이나 국민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자체는 특화산업에 대하여 협조적인 게임과 비협조적인 게임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협조적인 게임이란 각 지자체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기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만 투자하고 상대적 열위가 있는 산업은 타 지역에 양보하는 정책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각 지역이 자기 지역의 특화산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별 특화산업은 생산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도출할 수 있다.

둘째, 특화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비협조적 게임을 들 수 있다. 지자체간의 비협조적인 경쟁 결과는 국가의 가용투자재원이 전국대비 각 지자체의 인구비율에 따라 단순하게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각 지자체의 물리적 힘에 의하여 투자재원이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자체가 우리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조적 게임을 유도할 제도 및 유인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협조적 게임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지역이 손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전체 그리고 각 지자체가 모두 승리자가 되는 윈윈(win-win)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산업이 전라남도 혹은 경상남도에 입지함에 따라 양 지자체의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그 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의 모색

제시되고 있는 각종 동서경제협력 방안들이 지역주민, 기업인, 행정기관 등에 현실적이며 즉각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종 제안이나 방안들이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동서경제협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화합의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가 지니고 있는 매우 한정된 자원을 넓은 지역에 배분하여 전시효과만을 올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상호 동서경제협력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개발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광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협력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지역은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공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권역내외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지역별로 시내의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기반정비와 대중교통시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테면, 광양만권과 진주권을 경제적-공간적으로 통합연계

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체계, 도로망, 교육, 휴양공간의 재편성을 유도하며, 상호기능을 분담하고 파급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광양만권과 진주권에 위치한 기존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후방연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광양만권은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의 화학류와 제1차금속산업 등이 뚜렷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광양만권에 입지한 이들 산업은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지만, 이 지역의 경우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연계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산업의 연계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들 전방연계산업을 진주권역 특화산업으로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육성하게 되면 양 지역의 산업이 동시에 고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 및 이벤트자원을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연계시킨다면 상당한 수준의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지 하면 제주도, 설악산 및 해외여행을 생각하는데, 이들에게 아름다운 남해안의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신혼여행을 위한 잘 갖추어진 유람선을 목포-완도-여수-충무-부산까지 운행하여 그들에게 환상적인 추억을 심어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문화, 풍물 음식 등을 경험하도록 하여 동서의 높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타 지자체에 입지한 특화산업에의 투자

입지특성상 자기 지역에서는 육성할 수 없지만, 타 지자체에서 육성하고 있는 특화산업이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 지역의 특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서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산·학·연·관의 협의체에서 심사숙고하여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투자이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지역에의 투자를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지역의 특화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적극적인 구매알선을 통하여 상거래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산업에 관한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지역산업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가 축적하고 관련기관과의 전산망의 연결을 통해 일괄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공동브랜드의 사용

공동브랜드 전략은 동업종, 유사업종 또는 이업종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기존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내외적인 기업이미지 제고

와 함께 독자적인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의 하나이다(상공회의소 1998). 이러한 공동브랜드를 기업간 마케팅의 공동화범위를 뛰어넘어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공동화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커다란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양 지자체내의 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이른바 “동서경제협력을 위한 제품”이라는 로고와 글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 시책을 따르는 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남권역과 경남권역의 특화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부착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브랜드를 부착하여 공동마케팅활동을 수행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공동브랜드를 도입하고, 품질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함에 따라서 품질수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제품출하량의 조절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 시장의 공동개척

특화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 생산된 물품의 상설전시판매장을 상대방 지자체가 개설하여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이외의 지역, 즉 국내외의 시장에서 공동으로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방기업의 어려움은 각종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은 물론 소비자의 행태변화에도 관심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해외마케팅정보는 물론 최신 기술정보, 시장수요변화, 소비자기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높은 열의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적합한 차별적인 산업정책의 개발은 쉬운 과업이 아니다.

적절한 산업의 지역별 배치는 각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가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화산업의 개념으로는 특정 산업이 지니고 있는 그 지역내의 잠재력,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성장비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선정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공동체의식, 지역의 특수성, 산업의 역사성, 지정학적 환경을 중시하면서 개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서 특화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구체적으로 경쟁력, 성장성, 산업연관성, 지역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화산업이 특정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지역간 교역을 통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화산업을 통한 지역간 교역이 한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효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 업종에 특화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즉, 업종의 경기가 좋아 성장할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지만 일시적인 불황이 닥칠 경우에는 소수의 업종에 특화도가 높을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특화산업정책을 구사할 경우라도 적어도 3-5개의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주기적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산업의 수급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라남도의 특화산업으로는 제1차금속산업(철강 및 철강관련제품),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관광산업(향토축제, 주민관광, 해안관광 등), 농림수산업(채소, 과일, 화훼 등 고소득작물) 등을 들 수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부품, 자동차, 항공산업, 조선 등의 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특화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학·연·관의 협조체계의 구성,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의 유도,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의 모색, 타 지자체에 입지한 특화산업에의 투자, 공동브랜드의 사용, 시장의 공동개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전남동부지역에는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소재산업인 화학산업과 1차금속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과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광양만권역과 진주권역의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양 지역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동서경제협력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철강의 주요 소비산업인 조립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산업 등과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등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자동차, 선박, 전자전기, 화학, 섬유 및 기계산업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형산업인 정밀화학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광양만권과 진주권이 힘을 합쳐 생산안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지역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정하여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하거나 참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문제와 업체 및 고용증가 측면과 연계해 볼 때 인력수요가 큰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자체는 효과적인 지방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1998), 광주전남 보고서 - 지역정책의 회고와 실천과제.
- 김도형 (1993), 일본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정책, 산업연구원.
- 김명수, 양재선, 박철우, 정순관, 김갑성 (1998), “순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 산업 분석 및 육성방안”,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범식, 송영필, 최진우, 강신렴, 김갑성, 임종인 (1996),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 분석과 육성 방안”, 삼성경제연구소-광주전남발전연구원.
- 김선기 (1996),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1998), 글로벌경쟁시대의 공동브랜드 전략과 성공조건.
- 삼성경제연구소 (1995), 지역 및 지역간 I/O를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지역특화산업.
- 어명근, 이병기, 김정연 (1993), 지역 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성동 (1995),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고도화 방안”, 광주전남 비전21, 15-54.
- 이춘근, 곽종무, 유병규, 김갑성, 최진우, 송영필, 강신겸 (1997), 대구·경북지역의 특화산업 선정과 육성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 전남발전연구원 (1993), 제조업 성장의 지역별 특성과 격차분석 - 광주전남 지역의 공업화 전략.
- 전남발전연구원 (1994a),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 전라남도 (1997), 전남21세기.